

고령자 인구이동과 국토·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

민성희(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), 박정호(국토연구원 연구원)

-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지역 간 인구이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, 고령화 진전으로 총이동인구 중 고령자(65세 이상)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 - 1995년 3.7%이던 고령자 비중이 2010년 6.1%로 1.6배 증가
- 고령자 인구이동과 함께 경제활동 인구이동도 계속되면서 지역 간 고령화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
 - 2010년에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 고령자 전입이 고령자 전출보다 많았던 시군구가 절반(112개)에 달하고, 경제활동인구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시군구는 1/3(85개)에 이름
- 고령자 인구의 이동에는 주택 관련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 - 고령자 인구이동의 가장 주된 요인(41.8%)은 주택 매매, 소유관계 변화 등 주택과 관련된 요인이었으며, 주택 관련 요인에 따른 이동은 국토 전반에 걸쳐 나타남

| 정 | 책 | 적 | 시 | 사 | 점 |

“고령화 시대의 인구이동에 대응하는 국토·지역정책이 필요”

- 1 고령화에 활기차게 대응(Active Aging)하여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고령자 인구의 이동 증가 및 새로운 환경 적응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
- 2 고령자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이동으로 인한 고령화 수준의 지역 간 격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프트웨어(Software) 측면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개발·공급이 긴급
- 3 65세 이상 1~2인 가구의 증가, 주택 관련 요인에 따른 고령자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의 주요계층으로 부상하는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 수립이 시급

1. 고령화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 추이

● 고령화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

-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(7% 이상)에 진입한 후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, 2018년에 고령사회(14% 이상), 2026년에 초고령사회(20% 이상) 진입을 각각 앞두고 있음
 - 의료기술 발달, 영양상태 개선,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기대수명은 2010년 79.6세에서 2030년 83.1세, 2050년 86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
 - 201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6.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, 2030년에는 2.6명당 노인 1명, 2050년에는 1.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견됨
- 인구추계자료(2010)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수(65세 이상)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- 경제활동인구(15~64세)는 2015년 이후부터 감소하고, 총인구도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 - 고령화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고령화율이 증가하고, 65세 이상 1~2인 가구는 2035년까지 연평균 19만 6천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[그림 1] 고령자수 추이 및 전망(1955~2060)



자료: 통계청, 각 연도, 인구주택총조사.

● 고령화 시대의 인구이동 추이

-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, 고령화 진전과 고령이동자수 증가 등으로 총 이동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 - 전체 연령계층의 인구이동률은 1995년 19.9%에서 2010년 16.5%로 감소
 - 그러나 총이동자 대비 고령자 이동률은 1995년 3.7%에서 2010년 6.1%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향후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이동자수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

[그림 2] 고령자 이동률 추이(1995~2010)



자료: 통계청, 각 연도, 국내인구이동통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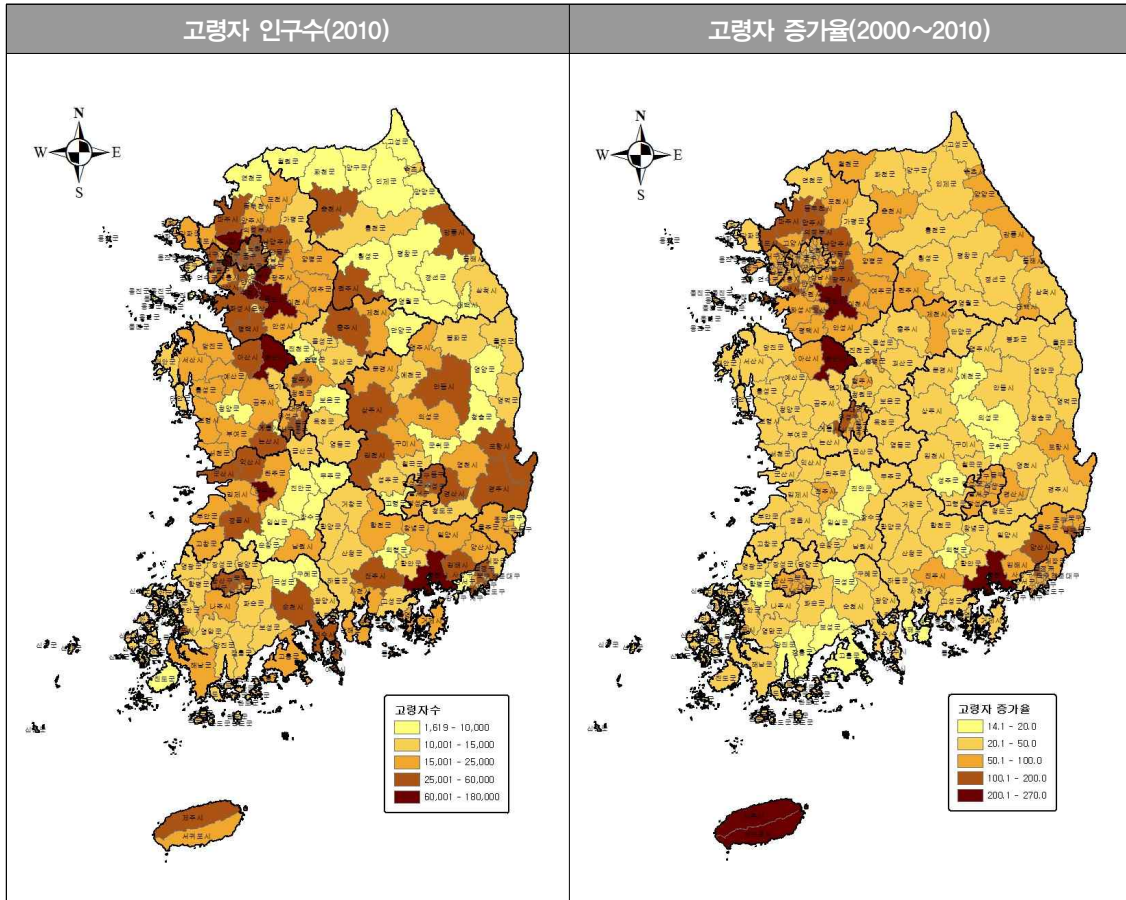
2. 고령자의 지역별 분포 및 인구이동 현황

● 지역별 고령자 분포 현황

- 고령거주자 및 고령자 비중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인구이동도 활발해지고 있으며, 전국 시군구 중 특히 원시, 천안시, 인시에서 이러한 상이 두 러
 - 고령자 인구로는 2010년 원시가 17만 4,134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, 천안시, 고양시, 남시, 인시, 수원시, 부천시 등에도 고령자가 많이 거주

[그림 3] 고령자 인구수 및 증가율

(: 명, %)



자료: 통계청, 각 연도, 인구주택총조사.

- 2000년과 2010년 사이 고령자 증가율은 인시가 265.4%로 가장 높았으며, 서 시와 제주시, 천안시, 원시의 고령자 증가율도 200% 이상을 나타

● 지역 간 고령자 인구이동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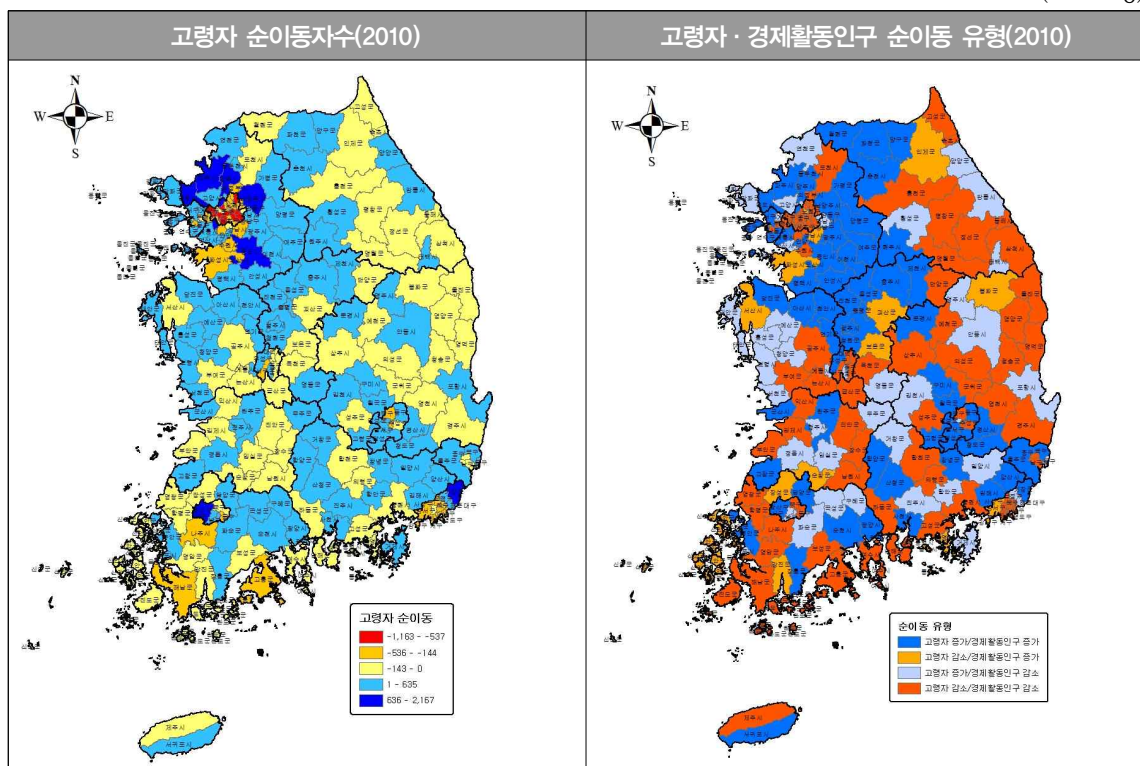
-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으로 한 인구이동 을 보면, 전국 230개 시군구 중 고령자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시군구는 112개로 전국 시군구의 절반에 해당됨
 - 남양주시, 인시, 시, 주시, 명시, 양주시 등 주로 경기도에서 고령자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반면, 서 에서는 고령자의 전출 초과 상이 두 러
 -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시군구는 85개로 국토의 37.0% 수준에 러, 경제활동인구의 전입 초과에 비하여 고령자의 전입 초과 상이 전국 시군구에 되고 있음

■ 전국 230개 시군구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이동 증감에 따라 유·화하면,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 시군구는 30.0%, 고령자 증가·경제활동인구 감소 시군구는 18.7%,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시군구는 44.3%, 고령자 감소·경제활동인구 증가 시군구는 7.0%로 나타남

-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: 경기도 남양주시 등 서·인근 지역과 부·기장군, 주·구 등에서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음
- 고령자 증가·경제활동인구 감소: 안·시, 시, 고양시 등에서 고령자는 늘어 반면에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음
-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: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감소한 상·10개소에 서대·구, 영등·구 등 모두 서·시내 10개구가 해당
- 고령자 감소·경제활동인구 증가: 경기도 화·시, 서·구 등에서 고령자는 감소한 반면에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

【그림 4】 고령자 순이동 현황 및 유형

(단위 : 명)



자료: 통계청, 2010. 국내인구이동통계.

3. 고령자 인구이동 요인

● 연령계층별 인구이동 요인(전입 기준)

-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이동 요인을 비교한 결과, 가장 주된 요인은 주택 관련 요인으로 동 하계 나타나, 그 요인에서는 양자 간에 차이 러
 - 주택: 주택 매매, 소유관계 변화 등 주택 관련 요인은 고령자(41.8%)와 경제활동인구(40.7%)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 이주 정 시 주택 관련 요인의 중요 을 보여
 - : , 이 , 등 관련 요인에 의해 이동한 고령자는 3.5%에 그 반면, 경제활동인구는 14.2%로 높게 나타나 큰 차이 보여
 - 가 :가 구 원과 세대 구 , 세대 가, 입 등 가 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동한 고령자의 비율은 23.1%,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6.2%로 나타나 고령자의 이동은 자 세대의 이동에 상대적으로 의 적 을 수 있음
 - 건강: 정 적· 체적 건강 상의 요인에 따라 이동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4.9%로 경제활동인구(0.7%)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
 - 및 통: , 통수 및 시 과 관련 요인으로 이동 한 비율은 매우 게 나타남

[표 1] 연령계층별 인구이동 요인(2010) (: %)

전입사유 \ 연령대	고령자	경제활동인구	전체
주 택	41.8	40.7	42.3
	3.5	14.2	12.5
가	23.1	16.2	16.0
건 강	4.9	0.7	0.9
	0.4	2.4	3.0
통	0.3	0.8	0.7
기 타	25.9	25.0	24.7
계	100.0	100.0	100.0

자료: 통계청, 2010. 국내인구이동통계.

● 주택 관련 인구이동 현황

- 인구이동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 주택 관련 요인 측면에서 시군구 간 인구이동을 보면, 고령자의 경우 국토 전반에 걸쳐 주거지 이동한 반면에, 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서 특 시와 경기도 및 역시에 중되어 대조 이 (그 5 조)
 - 다만, 서 은평구, 부 기장군 및 남구, 명시 등은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의 주택 관련 인구이동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남

[그림 5] 주택 관련 인구이동률

(: %)



자료: 통계청, 각 연도, 국내인구이동통계.

4. 정책적 시사점

- 향후 고령자 이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입지와 전출지 모두 다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
로 고령화 시대의 인구이동에 대응하는 국토·지역정책이 필요
 - 하고 르게 진전되는 고령화 시대에는 국토이 측면에서도 고령자들의 인구
이동 및 주택수요 반영한 국토·지역정책을 려할 필요
 -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따른 전·출입지의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·경제 측면에서 지역에
미 는 영향을 감안하여 주거, 자리, 의료·여가· 화·복지 등 고령자 관련 야 정
책이 필요
 - 수도 , 부 등 대도시로의 이주에서 어나 도시에서 으로 이동하는 고령자가
늘어나고 있으 로 이주 고령자의 안정적인 정 을 지원할 필요

- 고령화에 활기차게 대응(Active Aging)하여,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고령자 인구의 이동 증가가 예상되므로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주거지 이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
 - 수도권에서는 1996년부터 지역 주택을 대하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고령자 지원하는 이주 지원제도인 (a an ran o ing n tit te) 운영
-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간 고령화 수준의 차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(Software) 측면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개발·공급할 필요
 - 2010년 기준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던 시군구는 국토 전반에 걸쳐 각각 1/2, 1/3에 달하였으며, 2000~2010년간 고령자 증가율은 최소 14.1%에서 최대 265.4%로 큰 차이 보
 -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이동 유 (증가 는 감소)에 따라 고령화 정도가 지역 간에 차 화되고 이에 따라 고령자 복지서비스수요의 변화와 차이도 것으로 예상됨
 - 지역 고령자 복지서비스수요의 증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웨어(ar ware)적인 노인주거·의료·여가복지서비스 대와 어, 고령자 복지서비스 시 화(ein tit tiona i ation)한 기보 , 요양· , 주·야간보 등 가노인복지서비스 및 소 모 조 등 소프트웨어(Software) 측면의 복지서비스체계 구 이 필요함
- 65세 이상 1~2인 가구 증가, 고령자의 주택 관련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의 주요 계층으로 부상할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함
 - 2010년 고령자 인구이동의 주된 요인은 ‘주택(41.8%)’으로 나타 으며, 국토 전반에 걸쳐 주택과 관련된 고령자 전입 비율이 높은 시·군·구는 고르게 함
 -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해 고령자 주거지원계 수립, 거노인을 함한 1~2인 고령가구의 주택개조비 지원, 고령 전입자의 주거 제 상 및 원만한 정 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터 등 고령화 및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필요

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민성희 책임연구원 (shmin@krihs.re.kr, 031-380-0154)
 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박정호 연구원 (junghopark@krihs.re.kr, 031-380-0387)